

## <제9강>

### 문장 성분

#### 1. 문장과 문법 단위

##### 1) 문장

- (1) 개념 :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형식이다. 따라서 문장이 아니고서는 머릿속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
- (2)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때로는 “불이야!”, “정말?”과 같은 표현을 문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상황이나 문맥을 통하여 생략되어 있는 주어나 서술어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저 코스모스가(주어부) / 아주 아름답다.(서술부)
- (3) 문장은 의미상으로는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구성상으로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형식상으로는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다.
- (4) 문장을 이루는 문법 단위 - 어절, 구, 절

##### 2)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

###### (1) 어절

- ①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문법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 ②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앞의 말에 붙어 한 어절을 이룬다.

###### (2) 구

- ①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절이 어울려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한다.
- ② 자체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 ③ 종류
  - ㄱ. 명사구 : 새 차가 좋다.
  - ㄴ. 동사구 : 다희는 노래를 잘 부른다.
  - ㄷ. 형용사구 : 봄인데도 오늘은 매우 춥다.
  - ㄹ. 관형사구 : 이 책은 아주 새 책이다. / 이 그리고 저 사람이 했다.
  - ㅁ. 부사구 : 매우 빨리 친해졌다. / 너무 그리고 자주 전화를 했다.

###### (3) 절

- ①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다.
- ②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고, 더 큰 문장 속에 들어 있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 ③ 종류 :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 
- 민호는 영현이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았다.
  - ☞ 어절 : 민호는, 영현이가, 합격했음을, 알았다.
  - ☞ 절 : 영현이가 합격했음을
- 

### 4.3.2. 문장 성분

- **문장 성분** :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
- **문장 성분의 종류** -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 ① 주성분 :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필수적인 성분 -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 ② 부속 성분 :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수의적인 성분 - 관형어, 부사어
  - ③ 독립 성분 :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 - 독립어
- **문장 성분상의 특징**
  - ① 서술어의 중요성 : 국어를 서술어 중심 언어라고 말할 정도로 서술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나머지 필수 성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② 부속 성분이긴 하지만 소위 필수적인 부사어도 서술어 자릿수에 영향을 끼친다.
  - ③ 관형어도 의존명사 앞에서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수의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 1) 서술어

- (1) **개념** : 주어(동작이나 작용, 상태, 성질 등)를 서술하는 문장 성분
- (2) **종류** : 동사(~ 어찌한다), 형용사(~ 어떠하다), 체언 + 이다(~ 무엇이다)
  - ① 용언의 종결형 예) 말이 달린다 / 하늘이 푸르다/ 나는 선생이다.
  - ② 용언의 연결형(용언의 어간 + 연결어미)
    - 예)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리 춥지는 않다.
  - ③ 용언의 전성형(용언의 어간 + 전성어미)
    - ㄱ. 관형사형            예) 마음이 고운 여자를 만나라.
    - ㄴ. 명사형             예) 여울이가 합격했음이 확실해
    - ㄷ. 부사형            예) 영범이는 말도 없이 갔어.
  - ④ 서술절 예) 나는 키가 크다.
  - ⑤ 본용언 + 보조용언 :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된 형태는 하나의 서술어로 본다. 용언은 두 개다. 예) 잡아 버리다, 마시고 있다, 가고 싶다, 살지 않다
  - ⑥ 서술격 조사 ‘이다’
    - ㄱ. 체언 + 이다 예) 이것이 책이다.
    - ㄴ. 체언 + 보조조사 + 이다 예) 시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
    - ㄷ. 용언의 활용형 + 이다 예) 그가 성공한 것은 서른이 넘어서였다.
    - ㄹ. 부사어 + 이다 예) 인순이를 만난 것은 금일도에서였죠.
    - ㅁ. 문장 + 이다 예)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느냐이다.

- ⑦ 명사(서술성 명사)만으로 된 서술어 : 서술격 조사 ‘이다’, 접미사 ‘하다’의 생략 현상
  - ㄱ. 만익이가 일등으로 합격(‘하다’ 생략)
  - ㄴ. 우리는 조국의 방패(‘이다’ 생략)

**(3) 서술어의 자릿수**

① 개념 : 서술어가 문장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수.

서술어의 종류	구성	서술어의 성격	예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자동사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었다.
	주어	형용사	코스모스가 (매우) 아름답다.
두 자리 서술어	주어 + 목적어	타동사	옥션이는 (많은) 책을 읽었다.
	주어 + 보어	되다, 아니다	서형이가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
	주어 + 부사어	자동사	나는 (빨리) 집으로 향했다.
세 자리 서술어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수여동사, ‘삼다’류	나는 (착한) 그녀를 딸로 삼았다. 그는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젓을 먹였다.

② 자릿수의 이동 : 같은 형태의 서술어라도 환경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아이들이 (즐겁게) 논다	아이들이 옷을 (마당에서) 논다	
차가 (저절로) 멈추었다.	경찰이 차를 멈추었다.	
달이 밝다.	나는 광주 지리에 밝다.	
지영이는 노래가 좋다.	술은 정신 건강에 좋다.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선녀로 생각한다.

**[서술어 찾기 및 서술어 자릿수 확인하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본래 본용언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본용언이 완전 서술어라면 한 자리 서술어가 될 것이고, 불완전 서술어라면 두 자리 서술어 내지 세 자리 서술어가 될 것이다.

보조용언이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양태적 기능을 한다고 볼 때,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서술어 자릿수를 그대로 따른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주다’ 같은 경우는 비록 보조용언이지만 서술어 자릿수에 영향을 주고 있어 특징적이다.

1. 왜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지 않았는가?

서술어 : 되지 않았는가?

서술어 자릿수 : 두 자리 서술어 (되다/ 되지 않았는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요소 : 한글날이(주어), 국경일이(보어)

2. 관악구 보건소에서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독감 예방 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

서술어 : 맞이하여, (같이), 실시합니다

서술어 자릿수 : 두 자리 서술어 [맞이하여, (같이), 실시합니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요소 :

- 맞이하여 : (관악구 보건소에서는, 우리는[일반적인 주어 생략], 환절기를(목적어))
- 실시합니다 : 관악구 보건소에서는(주어, 단체 부정명사), 독감 예방 접종을(목적어)
- '다음과 같이'는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인정하여 부사구로 처리한다.

3.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 주자.

서술어 : 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해 주자.

서술어 자릿수 : 세 자리 서술어 (해 주길, 해 주자), 두 자리 서술어 (기다리지 말고)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요소 :

- 해 주길 : 누군가(주어), 나에게(필수적 부사어), 뭔가를(목적어)
- 기다리지 말고 : (내가)(주어생략), 누군가~해 주길(목적어)
- 해 주자 : 내가(주어), 누군가에게(필수적 부사어), 뭔가를(목적어)

[7차 문법 교사용 지도서, PP.190~191]

---

---

#### (4) 서술어 쓰임의 제약

① 선택 제약 : 용언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체언만을 요구하는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 이 때의 용언과 체언 사이의 관계를 선택 제약 관계라 한다.

ㄱ. 은순이는 눈을 감았다.

ㄱ'. 은순이는 입을 다물었다.

ㄴ. \*성자는 입을 감았다.

ㄴ'. \*성자는 눈을 다물었다.

② 호응 제약 : 일반적으로, 용언의 특정한 말과는 어울리나, 어떤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

ㄱ. 아기가 방실방실 웃는다 - 원칙적으로 유정명사와만 호응

ㄴ. 웃어른은 존경해야 한다 - 높임을 나타내는 명사에 대해 쓰임

ㄷ. 저는 아침마다 우유를 한 잔씩 마십니다

- 원칙적으로 액체나 기체를 나타내는 명사(질량명사)와만 결합

③ 높임 표현 제약 : 같은 뜻의 서술어지만 주체의 신분과 등급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ㄱ. 아기가 곤하게 잔다.

ㄴ. 아버지께서 곤하게 주무신다.

(5) 서술어는 높임법과 시제를 나타낸다.

(6) 서술어는 다른 성분의 격을 결정해 주는 구실을 가진다.

## 2) 주어

(1) 개념 :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무엇이 어찌 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에서 '무엇이'의 자리를 차지한다.

(2) 실현 : 주어는 체언 또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체언 상당어구)에 '이/가', '께서'가 붙어 나타나는 데 주격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① 체언 + 주격 조사('이/가, 께서, 에서, 서')

- ㄱ. 체언            ㄱ            예) 성자가 공부를 한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 ㄴ. 명사구/절 ㄴ +이/가    예) 새 책이 좋다./ 마음이 곱기가 비단같다.
- ㄷ. 문장            ㄷ            예) 정아가 합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 ㄹ. 높임 명사 + 께서        예) 아버지께서 외국에 나가셨다.
- ㅁ. 단체(무정명사) +에서    예) 교육부에서 임용고사를 주관한다.
- ㅂ. '인수' + 서            예) 셋이서 길을 떠났다.

② 체언 + 보조사 : 보조사가 주격 조사 대신 결합되어 주어로 실현될 수도 있고, 여기에 주격 조사가 다시 결합할 수도 있다.

예) 정확하는 착하다. 정확도 착하다. 정확만 착하다./ 정확만이 착하다.

(3) 주격 조사의 생략 : 상황에 따라서 주격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이고 관용적인 경우 '주어임이 분명할 때'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체언 단독으로 쓰이기도 한다.

- ① 묻고 답할 때 : (너) 어디 가니? (나) 공부하러 학교에 가.
- ② 명령문인 경우 : 열심히 노력해라.
- ③ 성상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 저 노래를 들으니 참 슬프다.

※ 주격조사가 생략되면 문장 성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생략은 고정적인 관용어구에 한 정된다(불이야. 도둑이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주격조사가 생략되면 어순이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 (예) 저 사람 영희 안 만날 거야.

(4) 이중 주어문 : 주어가 겹쳐 사용됨으로써 이중 주어가 생기고, 이 이중 주어문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이중 주어문에 대한 접근 방법]

- 꼬끼리는 코가 길다.
- ① 겹문장으로 보아 서술절을 설정하는 방법(학교 문법의 입장) : '코가 길다'를 서술절로 인정하여 전체를 겹문장으로 본다. 서술어 '길다'는 '코가'라는 주어를, '코가 길다'라는 서술어는 '꼬끼리는'이라는 또 다른 주어를 요구한다고 본다. 그러나 외현적으로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겹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 ② 홑문장으로 보아 단순히 주어가 두 개 있다고 본다. 이중 주어는 국어의 한 특성으로 본다.
- ③ 홑문장으로 보면서 앞의 '꼬끼리는'을 주제어로 보는 방법 : 주제어를 나타내는 표지로 '은/는'이 붙은 말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특성에 근거한다. 문장의 기본 구조를 '주제어 + 주어 + 서술어' 방식으로 보는 방법으로, 국어의 모든 문장에 주제어를 설정해야 한다는 가설을 필요로 한다.
- ④ 홑문장으로 보면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초점 기능으로 파악하는 방법 : 문장의 일정한 성분에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화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초점을 받는 성분은 문장의 맨 앞이든 중간이든 상관없이 나타날 수가 있다. 문장의 첫머리에만 나타나는 주제어가 아니라,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성분에 '강조'의 보조사 '은/는'을 붙인다는 견해이다.

(5) 주어의 통사적 특징 / 주어의 선택 제약

- ① 주어가 높임의 명사이면 서술어에 높임법의 선어말어미 '-시-'가 온다.  
예) 선생님께서 주연이를 부르시었다.

- ② 주어가 3인칭이고 그것이 반복되면 뒤에 재귀 대명사 '자기'가 온다.  
 예) 철수는 자기가 천재라고 여긴다.  
 <참고> ㄱ. 철수가 아이들에게 자기 책을 읽히었다.(자기=철수, 아이들)  
 ㄴ. 철수가 아이들에게 자기 책을 읽게 하였다.(자기=아이들)
- ③ 질량성과 추상성을 띤 명사나 부사에 복수 표시의 보조사 '들'이 붙으면 주어는 거의 예외 없이 복수형이다.  
 예) (너희들) 빨리 물들 길어 오너라./ (너희들) 어서들 오너라.

### 3) 목적어

- (1) 개념 :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 (2) 실현 :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 '을/를'이 생략될 수도 있다. 또 '을/를'이 생략되는 대신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사가 붙기도 한다.
- ① 체언 + 목적격 조사(을/를)                      예) 나는 맥주를 마신다.
- ② 명사 상당어구(명사구, 명사절, 문장 등)  
 ㄱ. 혁수는 언제나 그 넥타이를 맨다.  
 ㄴ. 나는 정웅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았다.  
 ㄷ. 나는 윤교가 왜 웃는가를 모르겠다.
- ③ 목적격 조사의 생략 : 목적격 조사 '을/를'이 첨가될 수 있어야 목적어이다.  
 예) 나는 그 문제 아직 못 풀었어.  
 ※ 초점을 받을 때는 생략할 수 없다 :  
 ㄱ. 너는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니?                      ㄴ. 나는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
- ④ 보조사가 대신 결합하여 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보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  
 ㄱ. 슬기는 그림도 잘 그린다.                                      ㄴ. 근아는 커피만을 좋아한다.

#### (3) 목적어의 겹침

- ① 한 문장에 목적어가 두 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뒤 목적어를 다른 성분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철웅이가 책을 나를 주었다. → 철웅이가 책을 나에게 주었다.
- ② 뒤의 목적어는 앞의 목적어의 부분이나 종류 또는 수량을 나타낸다.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두 목적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ㄱ. 철수가 영희를 손목을 잡았다.  
 → '철수가 영희의 손목을 잡았다.' 로 해석됨. (부분)  
 ㄴ. 영희는 수영복을 작은 것을 골랐다.  
 → 수영복의 한 종류로서 '수영복 중'으로 해석됨. (종류)  
 ㄷ. 나는 조카에게 용돈을 만 원을 주었다.  
 → 나는 조카에게 용돈 만 원을 주었다.(수량)  
 나는 조카에게 용돈을 만 원 주었다.

#### (4)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 ㄱ. 선희가 학교에 간다.                                      ㄱ'. 선희가 학교를 간다.  
 ㄴ. 지영이는 선물을 근아에게 주었다.                      ㄴ'. 지영이는 선물을 근아를 주었다.

학교 문법의 입장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으면 목적어로 보기 때문에, 밑줄 친 ‘학교를’과 ‘근아를’은 목적어이고, ‘학교에’와 ‘근아에게’는 부사어이다. 그리고 이때 ‘을/를’은 보조사적 용법을 지닌 목적격 조사로 처리한다.

(5) 동족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 자다, 걷다, 추다, 꾸다, ...

ㄱ. 나는 오후저녁에 잠을 많이 자다.

ㄱ'. 나는 오후저녁에 많이 자다.

ㄴ. 나는 간밤에 꿈을 많이 꾸었다.(필수적으로 요구)

ㄴ'. \*나는 간밤에 많이 꾸었다.

#### 4) 보어

(1) 개념 :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2) 실현

① 체언 + 보격 조사 ‘이/가’로 실현된다.

예) 물이 얼음이 되었다.

② 보격 조사는 보조사가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격 조사와 같다.

예) 물이 얼음은 아니다.

#### [보어 설정의 논란]

-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서, 보격 조사 ‘이/가’와 결합하고 있는 성분이 보어이기 때문에, ‘얼음이’는 보어이고, ‘얼음으로’는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 보어는 불완전 용언을 보충하여 주는 필수 성분인데, 불완전 용언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깨뜨리다, 먹다, 가다, 다르다’에서 ‘깨뜨리다’는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있어야 하며, ‘가다’도 출발점과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 즉, ‘되다, 아니다’만이 보충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위의 예에서 ‘물이 얼음이 된다.’와 ‘물이 얼음으로 된다.’를 비교해 보면, 둘 다 불완전 용언이다. 즉, 이 둘의 공통점은 서술어 자릿수를 채워주는 기능이며, 차이점은 각각 ‘이, (으)로’라는 조사가 쓰인다는 점이다.[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용언 : (~에게) 주다, (~으로) 삼다, (~에) 넣다/두다, (~와) 닮다/같다/비슷하다, (~으로) 깨뜨리다]

#### ※ 학교 문법에서의 변론

- ① 위의 조사들을 만약 이 둘을 모두 보어로 보고, ‘이/가, (으)로’를 모두 보격 조사로 본다면, ‘집으로 가다’의 ‘(으)로’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어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격 조사로 보면 다른 서술어와 함께 쓰일 때 부사격조사로 쓰이는데 ‘보격조사’와 ‘부사격조사’의 구분이 문제가 된다.
  - ② 문장 성분의 구성은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자·타동사)’인데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용언을 더 설정하면 문법 체계의 틀이 무너진다.
-

- 
- ③ 필수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불안전용언의 통사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 ④ 이런 종류의 용언의 수가 많지 않다.
- 

## 5) 관형어

(1) 개념 : 체언으로 실현되는 주어, 목적어 앞에서 이들을 꾸미는 문장 성분

### (2) 실현

- ① 관형사 : 관형사는 관형어로만 쓰인다. 예) 내가 **새** 옷을 입었다.
- ② 체언 + 관형격 조사 '의'(관형격 조사 '의'가 없이 '체언+체언'의 구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 나의 직업은 교사 / 그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그는 **웃기기(의)** 천재다
- ③ 용언의 관형사형(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결합)으로 나타난다.
- ④ 서술격조사의 관형사형 예) **학생인** 네가 왜....

### (3) 관형격 조사의 구성

- ① 의미의 다양성 : 관형격 조사나 그 구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ㄱ. 하니의 책    ㄴ. 하니가 지니고 있는 책(소유)  
                  ㄷ. 하니가 지은 책(저자)  
ㄴ. 동생이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 어머니를 찍은 사진/ 어머니가 소유했던 사진/ 어머니가 찍은 사진
- ② 의미상 주어 표시 : 관형격 조사 '의'가 사용되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 정인의 **어리석음** → 정인이가 어리석다.
- ③ 의미상 목적어 표시 :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 평화의 **파괴** → 평화를 파괴하다.
- ④ 은유, 직유를 만들기도 한다.  
예) 낙엽의 **산더미** → 낙엽이 산더미다 → 낙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 ⑤ '체언+조사' 구성의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할 때는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ㄱ. 서울에서의 **생활** \*서울에서 생활  
ㄴ. 성공으로의 **길** \*성공으로 길
- ⑥ 의존명사 앞에는 관형어가 반드시 와야 한다.

## 6) 부사어

(1) 개념 : 서술어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

### (2) 부사어의 실현

- ① 부사 단독 : 지시 부사, 성상 부사, 양태 부사, 부정 부사 등  
예) 바다가 **매우/아주** 푸르다.
- ② 부사 + 보조사 예) 저 말이 **빨리도** 달리는구나.
- ③ 체언 + 부사격조사 예) 우리들은 방금 **도서관에서** 돌아왔다.



### (3) 부사어의 갈래

#### ① 성분 부사어(지시 부사, 성상 부사, 부정 부사)

ㄱ. 개념 : 문장 속의 특정한 성분을 꾸미는 부사어

ㄴ. 실현 : 부사어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는 것이 기본이나, 체언에 부사격조사 '에, 에서, 에게, (으)로'가 결합되어 나타나거나, 용언의 부사형 '-이, -게, -(아)서, -도록'으로 나타난다. 또 보조사가 결합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a. 가을 하늘이 참 높아 보인다. 이리 와서 앞아라.(부사→부사어)

b. 우리들은 오후에 여행에서 돌아왔다.

c. 어머니는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체언+부사격조사 → 부사어)

d. 무척이나 맑아 보인다.

e. 오늘은 하늘이 유난히도 깨끗하다.(부사+보조사 → 부사어)

#### ② 문장 부사어(양태 부사, 접속 부사)

ㄱ. 개념 :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

ㄴ. 특징

(ㄱ) 주로 양태 부사이다. '과연, 정말, 물론, 아무리, 아무쪼록, 부디, 설마, 모름지기, 설령'같이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부사들은 특별한 말들과 호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a.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 (긍정적 평가, 믿음, 단언)

b. 모름지기 젊은이는 커다란 포부를 가져야 한다. (당연)

c. 만일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조건)

(ㄴ) 접속 부사어 :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의 문장 접속 부사나 '및'과 같은 단어 접속 부사

a.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b. 정치, 경제 및 문화가 발달하여야 선진국이다.

(ㄷ) 특수하게 '형용사 어간 + -게'의 형태가 쓰인다. 기능이 다양하여 일원화하기가 어렵다. '-게'는 보조적연결어미가 주요한 기능이라고 간주하면, 부사어로 쓰이는 예로 파악한다. 다행스럽다, 불쌍하다, 이상하다, 슬프다, 어리석다 + '-게'

a. 진달래가 (빛깔이) 곱게 피었다.

b. 아이가 재주가 있게 생겼다.(필수적 부사어)

### (4) 부사어의 특징

① 보조사와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한다. 예) 저 개는 빨리도 뛰다.

② 자리 옮김이 비교적 자유롭고, 문장 부사가 성분 부사보다 자리 옮김이 더 자유롭다.

ㄱ. 현성어도 역시 존경받는 교사가 되었다.

ㄴ. 역시 현성어도 존경받는 교사가 되었다.

ㄷ. 현성이가 존경받는 교사가 역시 되었다.

③ 부사가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 체언을 꾸밀 때와 부정 부사는 자리 옮김이 불가능하다.

④ 부사어는 관형어와 달리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ㄱ. 오늘 즐거웠니? 조금.

ㄴ. 빨리 달려! 빨리!

#### 7) 독립어

(1) 개념 :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2) 실현

- ① 감탄사                                    예) 아이구, 어머니, 어, 에구머니
- ② 체언 + 호격 조사                    예) 꽃님이시여, 영수야
- ③ 제시어나 표제어                    예) 출세, 이것이 삶의 모든 것일까?